서울시정관련 연구동향

2014 년 하반기 거시경제 전망

산업연구원 | e-KIET 산업경제정보 | 2014.6.24.

http://www.kiet.re.kr/kiet_web/?sub_num=9&state=view&idx=47694

2014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세 확대와 내수 회복세 지속으로 연간 3.8% 내외의 성장이 예상되며, 무역흑자는 400억 달러를 상회할 전망

- 국내 경기상황
 - 수출은 IT 제품의 호조세와 자동차 등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회복세 지속
 - 내수는 작년 하반기 이후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며, 민간소비도 조금씩 확대
- 대외여건 전망
 - 하반기 세계경제는 선진국 주도의 회복세 지속 예상
 - 국제유가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예상되며, 원/달러 환율은 하반기에도 추가 하락 예상
- 2014 년 국내경제 전망
 -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세 확대와 내수 회복세 지속으로 연간 3.8% 내외의 성장 예상
 - 민간소비는 소득흐름 개선과 구매력 증대 효과로 증가세가 확대되나 가계부채 부담이 억제요인으로 작용하며 경제성장률에는 못 미칠 전망
 - 설비투자는 하반기에도 회복세를 유지할 전망이고, 건설투자는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증가세 지속
 - o 연간 수출은 5.3%, 수입은 6.2% 내외의 증가가 예상되며, 무역흑자는 400 억 달러를 상회할 전망

2014년 하반기 경제전망, 모멘텀 약한 경기회복

LG 경제연구원 | LGERI 리포트 | 2014. 7. 7.

http://www.lgeri.com/economy/domestic/article.asp?grouping=01010100&seq=969

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은 3% 초반, 국내 경제성장률은 3.6% 수준 예상 우리나라의 올해 수출증가율은 3%대, 경상수지는 7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할 전망

• 세계경제 전망

- 세계경제는 회복되고 있으나 기대에 못 미치는 성장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3% 초반 예상
- 미국의 경제회복은 예상보다 완만할 전망이며, 유로존은 플러스 성장을 지속
- 일본은 디플레 탈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으며, 중국은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성장세가 완만하게 둔화
- 국제유가는 공급둔화로 하반기 소폭 상승할 전망

• 국내경제 전망

- 국내경제는 하반기 회복세가 재개될 전망이며, 경제성장률은 3.6% 수준에 머물 것
- 설비투자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것이며, 건설투자는 올해 3% 내외 성장세 예상
- 올해 수출증가율은 3%대로 예상되며, 경상수지는 700 억 달러 이상을 기록할 전망
- 올해 실업률은 3.5%로 예년에 비해 높아질 전망이며,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% 미만 예상
- 국내금리의 하향안정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나 연말경부터는 완만한 상승세로 전화 예상
- 원/달러 환율은 하반기 달러당 평균 1,000 원, 내년에는 평균 990 원 수준 전망

- 경기부양을 통해 활력을 높이려는 유인이 커지고 있으나 완만하더라도 회복의 흐름을 보인다면 단기 부양에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
- 재정정책의 중심은 단기 대응에서 장기적 성장활력 제고에 맞추어져야 할 것
- 통화정책은 당분간 완화적 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, 원화의 급격한 절상을 막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

2014년 하반기 한국 경제의 하방위험

현대경제연구원 | 한국경제주평 | 2014.6.23.

http://www.hri.co.kr/report/main.asp

한국경제는 소프트패치에서 더블딥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, 미약한 경기 회복력을 강화하는데 정책 역량의 집중이 필요

- 2014 년 하반기 한국경제 전망
 - 외수경기의 완만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의 회복세는 미약할 전망이며 따라서
 - 지표경기의 완만한 회복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와의 괴리는 확대
 - 신규취업자는 크게 늘었으나 저부가가치 업종 및 50 대 이상의 고령층이 주도하며 고용의 질 악화
 - 하반기 원/달러 환율과 원/100 엔 환율 모두 1,000 원 이하로 하락 예상
 - 하반기 국제원자재 시장의 불안감 확대로 인한 국내물가 상승폭의 확대 가능성 고조
 - 2014 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당초 3.8%에서 3.6%로 하향 조정

- 한국경제는 소프트패치에서 더블딥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, 미약한 경기 회복력을 강화하는데 정책 역량의 집중이 필요
 - 재정 조기집행 등 기존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
 -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견지
 - 환율 하락 속도 조절 및 균형환율과의 과도한 이탈 방지
 -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통해 자산효과로 인한 민간소비 회복과 건설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유도
 - 잠재성장률 제공 정책을 중단 없이 추진

2014 년 하반기 주요 산업 전망

산업연구원 | e-KIET 산업경제정보 | 2014. 6. 24

http://www.kiet.re.kr/kiet_web/?sub_num=9&state=view&idx=47695

하반기 10 대 주력산업의 수출은 원화강세와 신흥국의 부진 가능성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, 선진국의 경기회복세 등으로 상반기보다 수출은 확대되고 생산은 둔화될 전망

- 2014 년 10 대 주력산업 하반기 전망
 - 수출은 전년동기비 5.9% 증가
 - 생산은 디스플레이(-7.1%), 가전(-3%), 조선(-1.7%) 등의 내수 부진으로 상반기보다 증가세 둔화
 - 내수는 정보통신기기, 디스플레이, 일반기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, 가전 과 조선 등의 수요가 감소하여 성장둔화 예상
 - 수입은 조선(기자재), 정보통신기기(부품), 디스플레이가 10% 이상 증가하며 전년동기비 6.1% 증가
- 10 대 주력산업 하반기 전망 종합
 - 수출에서는 조선과 철강이 하반기에도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주력산업 전반의 수출 증가에 기여
 - 스마트폰, 가전, 자동차 등 일부 산업의 수출 확대 배경에는 해외생산 거점의 가동률 확대가 국내업체 들의 부품 수출을 유발하는 효과 작용
 - 원/달러 환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기업의 채산성 악화가 우려되나, 10 대 산업수출에 미치는 영향은
 과거에 비해 축소될 전망
 - 하반기 수출단가의 향방도 주요 산업 수출 확대의 변수가 될 것
 - 하반기 생산은 수출증가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

가계자산의 구조적 특징과 시사점

현대경제연구원 | 이슈리포트 | 2014.6.20.

http://www.hri.co.kr/report/main.asp

국내 가계자산의 현재 구조로서는 고령화 준비가 크게 미흡하므로 각 경제주체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적절한 가계자산의 정책과 관리가 필요

- 국내 가계자산의 특징
 - 국내 가계의 총자산대비 금융자산 비중은 34.3%로서 일본(60.2%), 미국(70.4%), 유로존(58.3%)에 비해 매우 낮음
 - 금융자산 중에서도 저수익성 안전 금융자산의 비중(72.4%)이 높음
 - '보험 및 연금'에서 사적연금 비중(2.1%)이 매우 낮음
 - 금융투자 자산에서 펀드 등을 통한 간접 투자상품의 비중(12.9%)이 미국(22.8%), 일본(32.2%), 유로 존(25.2%) 등에 비해 낮음

- ㅇ 정부
 - 가계 실물자산의 가치를 유지시키는 동시에 가계 실물자산이 금융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안 모색
 - 장기 간접투자상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장기보유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
- 금융기관
 - 고령화에 따른 개인금융자산 시장의 변화에 대비한 신상품 개발
 - 고령자를 위한 자산관리 기능 강화
- 가계
 - 고령화에 대비하여 지나친 실물자산과 예금 위주의 금융자산 등에서 탈피하여 사적연금, 편드 등 의 상품을 적절히 배합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

대한민국 일자리 지도: 지역별 특징과 시사점

현대경제연구원 | 한국경제주평 | 2014.7.14.

http://www.hri.co.kr/report/main.asp

일자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태이므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더불어 지역별 특성에 맞은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정책의 추진이 필요

• 배경

- ㅇ 지방자치 20 년의 결과 비수도권의 생활여건과 생활만족도가 개선되고 체감경기도 호조를 보임
 - 2002 년 21 만명에 달하던 비수도권의 인구 순유출이 2012 년 7천 명으로 급감
 - 지방의 부동산시장 호조로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수도권에 비해 지방에서 큰 폭으로 감소
- 광역경제권별 일자리의 변화 추이와 특징
 - 지난 5 년간 충청권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, 수도권의 종사자 비중은 2007년 50.8%에서 2012년
 50.9%로, 사업체 비중은 각각 46.8%에서 47.4%로 증가
 - 지난 5년간 고임금산업의 일자리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(58.9%)이 5년 전에 비해 2% 증가
 - 2012 년 현재 서울시의 창조산업 일자리 비중은 33.8%
 - 상용직 일자리의 비중은 울산(68.2%), 서울(66.5%) 등이 높으며, 자영업 일자리의 비중은 강원 (26.8%), 대구(24.9%) 등이 높은 편임

- 일자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태이므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
 - 지역별로 경제자유구역을 활용한 규제완화와 외자유치
 - 세종시와 지역혁신도시를 거점으로 하는 연구개발, 교육, 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
- 지역거점대학의 육성, 지역별 특화산업 단지 조성 등 지역별 특성에 맞은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 정책의 추진

중·고령자의 경제활동상태가 빈곤결정에 미치는 효과

한국보건사회연구원 | 보건복지 Issue&Focus | 2014.6

https://www.kihasa.re.kr/html/jsp/publication/periodical/focus/list.isp

정부중심의 노인일자리 창출은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며, 정년연장과 노인일자리 창출의 정책적 대상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

-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
 - 인구고령화가 가져올 인력부족문제의 완화
 - 중·고령근로자들의 고용불안과 이로 인한 빈곤문제 완화
 - 고령자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일에 대한 보람과 사회적인 유대감 유지
- 50세 이상 중·고령자들의 특징
 - 상용임금근로자로서 계속 근로하는 비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감소하다 60~64 세에 급감
 - 임시일용직은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서서히 감소하다 65~69 세부터 급감
 - 자영/고용/무급가족종사자는 55~59 세까지는 완만하게 증가하나, 60~64 세부터 급증

- 정부중심의 노인일자리 창출은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불충분
- 정년연장과 노인일자리 창출의 정책적 대상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
 - 상용임금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를 통해 빈곤을 방지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남
 - 임시일용직이나 자영/고용주/무급가족종사자일수록 공적연금가입비율이 상용임금근로자보다 낮아 노후소득준비 부족으로 빈곤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남
 -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충분히 은퇴를 준비 할 수 있도록 비자발적 은퇴를 줄이는 정책 실시
 - 영세작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두리누리사업을 통한 사회보험가입의 확대 및 가입기 간의 연장을 통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최소화

한국인의 여가, 양적·질적으로 미흡하다

LG 경제연구원 | LGERI 리포트 | 2014. 6. 24

http://www.lgeri.com/economy/domestic/article.asp?grouping=01010100&seq=966

내수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성장의 중요한 과제가 되는 만큼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이 필요 여가시설 및 관련 인프라의 확충과 불필요한 규제 완화, 여가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

- 우리나라 여가의 특징
 - 우리나라의 여가시간은 하루 평균 4.5 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10% 이상 적음
 - 고령층의 여가시간이 가장 길었으나 주로 TV 시청 등 정적이고 수동적인 활동 위주
 - 소득이 높을수록 활동적이고 다양한 여가를 즐김
 -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에 비해, 여성은 남성에 비해 휴일 여가시간이 적음
- 정책제언
 - 내수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성장의 중요한 과제가 되는 만큼 여가생활에 더욱 큰 관심이 필요
 - 여가의 양적·질적 확대를 위해 근로시간과 학습시간, 통근시간과 통학시간을 줄이는 방안 마련
 - ㅇ 여가시설 및 관련 인프라의 확충과 불필요한 규제 완화가 필요
 - 여가는 우리 경제의 수요를 확대시킬 뿐 아니라 창의력을 높여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
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

※ 본 자료는 연구 활동 및 시정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것임.

>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출간자료팀 email: <u>urbandata@si.re.kr</u> phone: 02-2149-1022